

네팔의 생태여행과 여성들의 관계, 우정, 연대 : ‘쓰리시스터즈’를 중심으로*

이 동 옥**

〈국문초록〉

관광산업은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의 노동을 착취하면서 이윤을 추구해 왔다고 비판받는다. 생태여행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의 관계를 중시하고 공정한 이윤을 분배하고자 한다. 네팔의 생태여행 기업 ‘3 Sisters Adventure Trekking’(이하 ‘쓰리시스터즈’로 통칭)은 여성 트레킹 가이드를 양성하고 고용한다. 이 연구는 쓰리시스터즈를 중심으로 네팔의 생태여행에서 지역 여성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사용했다.

쓰리시스터즈의 여성 경영자들은 가족사업에서 출발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보살피고 교육과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의 의식화와 여성들의 임파워먼트에 기여한다. 한편, EWN(Empowering Women of Nepal)의 학생들과 가이드들은 여성 경영자를 역할모델로 삼고, 함께 배우고 일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다. 네팔의 생태여행은 여성들의 우정과 연대에 기반해서 여성들의 독립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주제어: 생태여행, 여성, 관계, 우정, 연대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413-H00001).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forecastsky@hanmail.net
『젠더와 문화』 제5권 1호(2012) pp. 7-40

© 2012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머리말

네팔은 전세계적으로 산악트레킹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명성은 자연스럽게 획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광정책 진흥에 따른 것이다. 네팔 정부는 20세기 중반부터 히말라야(Himalaya) 트레킹을 외국의 방문객들에게 개방했고 1970년대 이래 안나푸르나(Annapurna) 지역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했다(Wearing and Neil, 2009). 이러한 관광정책 하에서 네팔 여성들은 손님을 접대하고 게스트하우스와 찻집을 운영하거나 트레킹 가이드로 일하며 수공예품을 제작·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Walker et al., 2001: 215). 네팔인들은 포터와 가이드를 선망하지 않지만 지역에서는 농업 이외에 일자리가 많지 않으므로 중요한 직업으로 다뤄진다. 트레킹의 성수기에는 10만 명의 포터가 일하는데, 가난한 농부들은 성수기에 포터로 일하면서 수익을 얻는다(Wearing and Neil, 2009).

네팔의 '3 Sisters Adventure Trekking'(이하 '쓰리시스터즈'로 통칭)은 혈연가족인 세 자매가 경영하는 산악트레킹 여행사다. 쓰리시스터즈는 여성 트레킹 가이드를 양성해서 고용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드루차(Drucza)의 조사에 따르면, 쓰리시스터즈는 1999년 NGO로 등록된 이래로 여성 800명을 관광산업에 입문시켰고 현재 여성 100명을 고용해서 연간 12만 루피(1,709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and UN Entity for Gender and the Employment of Women, 2011).

쓰리시스터즈는 서구 여성과 지역 여성의 관계에 기반해서 설립되었다. 여성 방문객들은 생태여행을 통해 지역 문화를 배우고 가난한 네팔 여성들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여성 경영자와 여성 가이드들은 여성 방문객들이 성폭력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여행이 되게끔 세심하게 배려

한다. 이 연구는 서구 여성과 지역 여성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지만, 주로 지역 여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 경영자와 여성 가이드, EWN(Empowering Women of Nepal)의 학생들의 우정과 연대가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여성 경영자와 여성 가이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로 경제적 이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생태여행을 통해 구성되는 여성들의 관계는 다른 여성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책임을 내포하기 때문에 여성주의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생태여행에 종사하는 지역 여성의 경험을 통해 여성의 의식화와 임파워먼트, 공동체 등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주의적 함의를 탐색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아시아 여성의 위치와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아시아 여성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1) 네팔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임파워먼트

근대의 성별분업은 남녀의 생물학적 본성에 근거해서 다른 성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방해하고 노동시장의 성차별을 정당화하며 결혼 내에서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유지시킨다(하트만, 1989; 월비, 1996; Lister, 1997; 프리드먼, 2002; Kittay, 2002). 이러한 구조 하에서 착한 여성의 기준은 제도에 순응하는 여성이고 자기이해를 도모하는 여성은 이기적이라고 비난받는다(마이어, 2006: 269-270; 리치, 2002).

네पाल에서 조혼, 과부 차별, 아내 폭력, 성매매는 중요한 여성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조혼은 학업 포기, 남편의 성폭력, 출산과정에서 높은 사망률 등을 야기함으로써 네팔 여성들의 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최민석, 2010). 또한 조혼한 여성들은 연령차가 많이 나는 남편과 결혼함으로써 사별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힌두교 문화에서 어린 과부들은 남편과 사별한 후 흰 옷을 입고 남편을 죽인 여자로서 죄인처럼 살면서 차별을 감수하고 있다.¹⁾ 푸리 등의 연구(Puri et al., 2010)는 15-24세 네팔 여성들 중 절반이 결혼 내에서 성폭력을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이 연구는 아내 폭력이 여성의 경제적 의존, 가난, 사회적 낙인,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카우프만과 크리포드의 연구(Kaufman and Crawford, 2011)는 네팔 여성들의 인도 여행을 성매매로 해석하고 낙인찍는 성별화된 이주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네팔 정부가 서남아시아로 요리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을 인신매매에서 보호하기 위해 2003년부터 고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기술한다(Kaufman and Crawford, 2011). 이러한 연구들은 네팔 여성들이 남성중심적 사회 구조에 취약한 현실을 기술하고 있다. 네팔 여성들은 노동 기회의 부족으로 자원과 권력에 접근하기 어렵고 남성에게 의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가난, 폭력 등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성불평등한 권력을 시정해야 한다.

쓰리시스터즈의 여성 경영자들은 사업의 목적을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통한 여성의 의사결정권 확보와 임파워먼트 강화로 설명한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란 무권력한 집단의 역량강화, 힘갖추기로 번역된다. 임파워먼트는 경제적 독립과 의식화 등과 관련된다. 프레이리(1978)는 억압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기존체제의 현상유지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의식화의 수단으로서 ‘교육’을 강조했다. 스트롬퀴스트(Stromquist, 2002)는 프레이

1) “네팔, 어린 과부는 악마다?”, MBC-TV, W, 170회, 2009년 1월 16일 방영.

리의 의식화에 기반해서 임파워먼트를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즉 임파워먼트란 인지적 측면에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정치적 측면에서 권력을 조직화하고 이동시키는 능력, 심리적 측면에서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 경제적 측면에서 독립적인 수입을 보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성의 임파워먼트란 여성의 경제적 독립뿐 아니라 정치세력화와 관련되어 있다. 여성의 임파워먼트는 가부장제 구조와 행위성 안에서 권력의 변화를 모색하고 여성의 삶을 취약하게 만드는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에 관심을 갖는다(Parpart et al., 2002; 허라금, 2011). 또한 여성의 임파워먼트는 여성들의 자아인식과 능력 강화, 사회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권력 구성, 여성 간의 연대 강화와 연관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Hall, 1992; 이상화, 2005; 박지영, 2006; 김경미 외, 2010; 이인숙, 2010; 이해정, 2010). 쓰리시스터즈의 여성 경영자들은 생태여행 사업을 네पाल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연관짓는다. ‘임파워먼트’는 쓰리시스터즈의 사업을 분석하는 데에는 유용한 개념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측면에서 여성 집단의 세력화보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 의식화,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두어 사용하고자 한다.

2) 생태여행과 여성들의 우정, 연대

관광산업은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되어 왔다. 관광산업은 기업의 성공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Wearing and Neil, 2009; 임영신·이혜영, 2009). 관광산업의 성공은 지역 주민의 노동을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인

도의 서부 해안인 고아(Goa) 지역의 여성들에 관한 연구는 관광산업의 발달과 지역 여성들의 건강의 부적(negative)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Desouza, 2010). 이 지역 주민들은 원래 어업에 종사했으나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산업으로 전업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고아 지역의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할 음식을 방문객에게 대접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보고한다. 이러한 상황은 관광산업이 과연 지역 주민, 특히 여성의 삶을 위해 유익한가 하고 질문하게 한다.

생태여행에서 방문객들은 소비적·일회적·일탈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문화를 존중한다(강미희, 2006; 강신겸, 2007; 임영신·이혜영, 2009). 생태여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안락한 리조트와 호텔을 포기하고 지역의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 교통·숙식에서 불편함을 감수한다(Wearing and Neil, 2009; Wight, 1993; Malloy and Fennell, 1998). 또한 이들이 생태여행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난한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한편, 조용한 자연에서 지식을 얻고 지역 문화를 배움으로써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Honey and Stewart, 2002).

지구화 시대에 쓰리시스터즈는 생태여행을 하는 서구 여성 방문객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으면서 여성 경영자와 여성 가이드의 관계를 형성한다. 생태여행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보전하면서도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한다. 쓰리시스터즈를 통해 맺어지는 여성 경영자와 여성 가이드의 관계는 노사관계로만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성 경영자와 여성 가이드의 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여성주의 공동체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여성 경영자들이 가난한 지역 여성들을 보살피는 행위와 여성 가이드들이 여성 경영자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태도는 여성 간의 우정과 연대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이

러한 관계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 간의 우정, 연대, 여성주의 공동체의 개념과 관련지어 분석될 수 있다. 프리드먼(Friedman, 1989)은 인간의 삶에서 우정을 중요한 덕목²⁾으로 제시한다. 그녀는, 친구란 평등성과 상호성을 중시하고 헌신, 신뢰, 친밀성, 보살핌, 관심, 존중을 포함한 관계라고 설명한다. 또한 레이몬드(Raymond)는 ‘우정이란 희로애락을 나누고 함께 일하며 도움을 주며 상처를 돌봐주는 행동’으로 정의한다(브라운, 2011: 198).

그러나 여성들의 우정은 남성들의 우정만큼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이성애 결혼제도와 연관되어 있다. 여성들에게 의미 있고 충족적인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남성과의 사랑, 결혼으로 인식되어 왔고(Raymond, 1986: 13), 여성들은 사적 영역에서 고립된 존재로서 친구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브라운, 2011: 178). 더욱이, 남성들은 여성들의 독립을 불안해하고 여성 간의 관계와 우정을 방해하는 권력을 행사해 왔다(마이어, 2006: 27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우정은 존재해 왔다. 특히 독신여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관계는 여성주의적 함의를 갖는다. 여성의 삶이 결혼제도에 강력하게 구속되었던 중세시대에도 여성들은 수녀원의 삶, 즉 독신을 선택할 수 있었다. 여성의 독신은 남성 성직자들의 견제를 받았지만, 수녀회와 베긴회(Beguines)의 회원은 우정을 통해 남성으로부터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을 구성했다(Raymond, 1986). 특히 베긴회의 회원들은 공장에서 노동하거나 레이스를 짜고 하녀나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 가난한 아동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블로뉴, 2006: 175). 여성들의 관계는

2)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쿠스윤리학』에서 우정을 신뢰, 존경, 감응, 공감 이상으로 반응과 수용을 요구하는 것, 생산과 유지에 요구되는 협조 행위와 양육자와 피양육자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시민적 덕목으로서 우정의 덕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브라운, 2011: 200).

독신공동체를 지속하는 동인이 되었다.

레이먼드는 여성들의 우정의 조건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한다 (Raymond, 1986; 마이어, 2006: 276-179). 첫째, ‘사려깊음 (thoughtfulness)’은 다른 여성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고, 타자에 대한 관심, 타자의 요구에 관한 관심, 타자에 대한 사려 깊음을 의미한다. 둘째, ‘열정(passion)’은 자아와 자아 간에 일어나는 대화로서, 사고와 정서 간의 긴장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감정/이성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통합이 가능하다. 셋째, ‘세계성(worldness)’은 남성이 만든 세계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성들이 내부자로서 다른 시선을 갖고 살면서 자신의 세계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넷째, ‘행복(happiness)’은 여성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적, 공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호글랜드(Hoagland)는 여성이 타자와의 관계 하에서 자아를 잃어버린다는 통념 때문에 여성들에게 우정이 힘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비판한다. 여성들의 우정은 서로를 의존함으로써 창조적인 자신이 되도록 도와 주며, 여성들의 우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호글랜드, 2005). 여성주의 공동체는 여성들이 최상의 자아를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이고 의식화의 공간이다(브라운, 2011; 루고네스, 2005). 집은 물리적 안전과 보호, 따뜻함과 편안함, 상호지지와 애정관계를 의미하지만 때때로 폭력의 장소를 의미한다(발렌타인, 2009). 근대의 성별분업 구도 하에서 집은 여성들의 일터이자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여성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다. 후스(Hooks)는 아버지가 군림하는 집이 아니라 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저항의 공동체인 집을 상상한다(Hooks, 1990). 여성들은 의식화 집단에서 대화를 통해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하면서 가부장제 권력에 도전할 힘을 얻을 수 있다. 여성 연대는 남성 간의 유대를 통해 남성 집단의 이익을

강화하는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에 반대한다(혹스, 2002: 45). 여성주의 공동체는 여성 간의 우정을 중시하고 남성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여성의 경험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자매애를 강조하는 것은 여성 간의 차이를 간과하고 주변화된 여성들의 억압을 지속한다(혹스, 2002; 모한티, 2005). 여성들의 연대는 여성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억압받는 여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포기할 때 가능하다(혹스, 2002: 47-51).

쓰리시스터즈의 여성 경영자들과 여성 가이드들은 고용주와 노동자라는 다른 위치에 있고 이러한 관계에는 위계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네팔 사회에서 성차별을 받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공감하고 연대의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성 경영자들의 윤리적 책임은 성차별의 경험에 기반해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연관된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병행했다. 문헌연구는 쓰리시스터즈의 내부 홍보 자료, 생태여행 가이드 책자,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서 사업의 내용과 전략을 고찰했다. 심층면접은 연구자가 2011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네팔 포카라(Pokhara)의 레이크사이드(Lakeside)에 위치한 쓰리시스터즈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여성 경영자, 여성 가이드, EWN의 여학생을 인터뷰했다.

포카라는 네पाल의 수도 카트만두(Kathmandu)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서구의 방문객들이 히말라야의 트레킹을 준비하기 위해 머무는 곳이다. 지역 주민들은 원래 농업에 종사했으나, 방문객들의 증가로 지역 자체가 식당, 게스트하우스, 상점으로 변화되었다. 쓰리시스

터즈의 게스트하우스 주변에는 밭에서 농사짓는 여성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레이크사이드’는 원래 네पाल어 지명이 있지만 관광객들을 위해 영어 지명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쓰리시스터즈를 방문하기 전에 숙소 예약과 함께 여성 경영자와 가이드들의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여성 경영자 럭키 체트리(Lucky Chhetri)는 연구자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연구에 관한 협조를 약속했다. 그녀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생태여행 기업 트래블러스맵(Travelers' Map)과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연구자의 방문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구자는 쓰리시스터즈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3일 동안 인터뷰를 했다. 숙박비는 주변의 숙소에 비해 비싼 편이었지만, 여성 경영자와의 관계, 연구과정의 편의성, 쓰리시스터즈의 조직에 관한 관심, 윤리적 소비 등을 고려해서 쓰리시스터즈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했다.

쓰리시스터즈의 사무실, 게스트하우스, 식당은 같은 건물에 있고 EWN은 게스트하우스에서 걸어서 2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연구자는 여성 경영자인 럭키, 디키 체트리(Dicky Chhetri)와 인터뷰하고 학생들의 영어 수업 현장을 참관했으며, 이들의 소개로 학생 4명과 가이드 4명과 인터뷰했다(표 1 참조). 연구자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여성 경영자의 중재로 연구참여자를 섭외했는데, 쓰리시스터즈와의 공식적 통로 외에 여성 가이드와 EWN의 학생들에게 접근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성 경영자들은 이 연구를 회사의 홍보뿐 아니라 여성주의, 여성운동, 네पाल 여성의 입파워먼트를 위해 의미 있는 작업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연구자는 기업 쓰리시스터즈의 성실하고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연구참여자들이 자기 검열을 통해 회사와 여성 경영자에 대해 장점만 이야기하려는 경향을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인터뷰는 EWN의 휴게실과 사무실, 쓰리시스터즈의 식당, 연구참여자 (사례 H)의 집 등에서 이루어졌고 40분 - 1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었고 가이드들은 EWN의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영어로 통역을 도와 주었다. 인터뷰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심층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이들의 상황에 공감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의 내면적 힘과 자아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적 사항

번호	이름	연령	직업 및 직무	가족 관계	학력	기타	인터뷰 일자
1	릭키	47	경영	독신	대학원 석사과정 (지리학)		2011. 4.28
2	디키	45	경영	독신	대졸 (회계학)		2011. 4.28
3	A	21	EWN의 학생	독신 부모(농업), 2남 1녀	고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 출신 ■ EWN의 졸업생인 친구의 소개로 지원. 	2011. 4.28
4	B	18	EWN의 학생	결혼 (1년차), 남편(22세, 요리사, 인도에 거주)	고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부 커필 바스투 출신(포카라에서 8시간 걸림) ■ 친정아버지는 운전자 ■ 연애 결혼 	2011. 4.28
5	C	30	EWN의 학생	부모(농업)	초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 줌라(Zumla) 출신 	2011. 4.29
6	D	27	EWN의 학생	부모(농업)	중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 타콜라(Thak Khola) 출신 	2011. 4.29
7	E	23	EWN의 접수원, 가이드 (3년차)	독신 (부모와 사별, 3남 2녀, 여동생과 동거)	고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동생도 EWN에서 교육받음 ■ 포카라에 거주(쓰리시스터즈에서 도보로 30분 거리) 	2011. 4.28

번호	이름	연령	직업 및 직무	가족 관계	학력	기타	인터뷰 일자
8	F	30	게스트 하우스 접수원, 가이드 (10년차)	결혼 (남편, 딸)	고졸	■ EWN 졸업	2011. 4.29
9	G	23	가이드 (3년차)	독신 (여동생과 동거)	대학원생 (석사과정, 사회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에서 출생. 10살 때 네팔로 귀향 ■ 부모는 인도에서 30년 동안 노동자로 일했고 현재 농업에 종사함 ■ 사촌오빠의 집(쓰리시스터즈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서 살다가 독립 	2011. 4.30
10	H	23	가이드 (1년차)	독신 (부모, 여동생과 동거)	대학원생 (석사과정, 사회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으로 노동이주 준비 ■ 가족 전체가 포카라 거주 	2011. 4.30

* 연령과 경력은 인터뷰 시점인 2011년 4월 기준.

4. 쓰리시스터즈의 개관과 현황

쓰리시스터즈는 산악트레킹 전문 여행사로서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과 임파워먼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쓰리시스터즈는 혈연가족이자 독신여성인 세 자매 럭키(Lucky Chhetri), 디키(Dicky Chhetri), 닉키 체트리(Nicky Chhetri)가 경영하고 있다. 1990년 럭키는 인도의 다즐링(Darjeeling) 히말라야 등반훈련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이후 여성 가이드 분야에 도전해 왔다. 세 자매는 1993년 네팔 포카라 레이크사이드에 게스트하우스와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1994년 여성 가이드를 원하

는 여성 방문객을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 쓰리시스터즈는 여성 방문객들이 트레킹 과정에서 남성 포터 및 가이드의 성희롱으로부터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 공감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임영신·이혜영, 2009). 또한 여성 경영자들은 1999년 EWN을 설립해서 여성 가이드를 양성하고 있다. EWN은 네팔의 비정부기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설립 목적은 네팔에서 가난하고 무력한 여성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쓰리시스터즈는 부모 없는 소녀들을 위해 보육원을 운영함으로써 여아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쓰리시스터즈는 트레킹,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의 식당, 택시, 나룻배의 운송업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가이드를 포함해서 식당, 게스트하우스에서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고 공평한 이윤을 배분하고자 노력한다. 식당,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남성들은 고객의 짐을 운반하고 여성들은 청소, 요리, 서빙을 한다. 쓰리시스터즈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전지구적으로 홍보하고 이메일로 게스트하우스와 트레킹 프로그램의 예약을 받는다. 쓰리시스터즈는 미국 CNN, 영국 BBC방송 등에 소개되었고 생태여행을 통해 네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여성들, 여성주의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쓰리시스터즈는 포카라 주변의 1일 관광코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산악 트레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줌슨 트레킹(Jomson Treks)은 타칼리(Thakali), 구룽(Gurung), 마가(Magar), 티벳(Tibet)족의 문화를 체험하고 칼리 간다키(Kali Gandaki) 계곡의 협곡을 따라 트레킹하는 것이다. 둘째, 안나푸르나 트레킹(Annapurna Sanctuary Treks)은 9-14일 동안의 왕복여행으로 해발 6-8,000미터의 눈 덮인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1년 중 4, 5, 10, 11월에 가능하다. 셋째, 안나푸르나 둘레길 트레킹(Annapurna Circuit Treks)은

안나푸르나 주변을 돌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통롱 라(Thorong La, 해발 5,400미터)에서 전망을 즐기면서 불교 사원을 방문하는 것이다.

또한 쓰리시스터즈는 2011년 주력 사업의 대상지역을 서부 네팔로 설정했다. 서부는 네팔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다. 쓰리시스터즈는 서네팔 트레킹(Treks in West Nepal)을 통해 지역의 가이드를 고용하고 전통문화와 수공예품 등을 소비하고 울파(Ulpa), 훔라(Humla), 줌라(Zumla), 몽구(Mungu) 지역을 방문하면서 캠핑을 즐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여성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편, 병원과 학교 등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5. 생태여행 사업과 여성들의 우정

1) 가족사업에서 여성주의 공동체로

쓰리시스터즈는 여성 경영자와 여성 가이드라는 여성 간의 관계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생태여행 기업으로서 여성주의,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평가될 수 있다. 생태여행의 사업은 가난한 지역 여성들을 가이드로 고용함으로써 여성들의 가난 극복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쓰리시스터즈는 여성 경영자들의 사기업(私企業)이고 혈연에 기초한 가족사업에서 출발했다. 세 자매의 큰오빠(50대)는 사업의 시작부터 함께했고 게스트하우스와 식당 지배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와 식당에서 큰오빠는 예의바르고 위엄 있는 태도로 종업원을 교육하고 회계를 담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의 배제와 성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큰오빠가 쓰리시스터즈의 사업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 준다. 여성 경영자들은 사업을 홍보할 때 큰오빠의 존재

를 언급하지 않았다. 큰오빠가 자신의 존재를 가시화하지 않고 ‘쓰리시스터즈’라는 명의의 사업을 허락한 것은 서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그만큼 상품적 가치가 있음을 보여 준다.

가족사업이 폐쇄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친구처럼 지내요. 같은 비전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갖는 거죠. 우리가 남과 일을 하기도 했지만 자매가 아닌 사람들과 오랫동안 목적을 공유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자매들과는 생각이 맞아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일을 하기 쉬워요(럭키).

자매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 통해서 좋아요. 서로 의견을 모을 수 있고 서로 이해하니까 일하기 쉽죠. 자매와의 관계는 사업파트너로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해요(디키).

럭키와 디키는,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족이 함께 일하는 장점을 말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장기적으로 일하기 힘든 점을 토로한다. 가족사업은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집단이기주의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가족인 노동자들과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과 조직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쓰리시스터즈가 혈연가족이 아닌 노동자들에게도 경영이나 상위직의 진급에 개방적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경영과 관리직에서 일할 기회가 제공될 때에 가족사업의 한계는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경영자들은 가족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 가이드뿐 아니라 청소, 접수, 운전, 서빙 등을 위해 지역의 남녀 주민을 고용하고 회사와 노동자의 이익을 50대 50으로 분배하고 있다. 이러한 분배는 거대 호텔과 리조트 등의 초국적 기

업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적은 이윤을 분배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획기적인 것이다. 또한 이들은 트레킹 과정에서 숙박, 식사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위탁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

한편, 세 자매는 이기적이고 타자를 배려할 줄 모르는 독신여성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생태여행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지역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 환원한다. 여성 경영자들은 부모 없는 10대 여성 17명을 보살피는 여아들의 보육원(Children's Home)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 없는 여아들을 보살핌으로써 가난하고 무력한 네팔 여성들이 성매매나 조혼에 노출되지 않고 성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이유로 쓰리스터즈의 사업은 혈연가족의 이해를 넘어서서 여성주의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2) 세 자매의 삶과 여성의 역할모델

저는 인도 다즐링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성장했죠.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 자매들에게 독립적인 여성이 될 것을 권고했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는데요.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분이었죠. 또 아버지는 우리 자매에게 운전을 배우라고 했어요. 여성이 운전하는 건 상상하지 못했죠. 우리 형제자매는 8명인데 3명이 독신이에요(럭키).

세 자매의 큰언니 럭키는 인도에서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와 함께 다즐링 지역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아버지라고 말한다. 럭키의 아버지는 딸들에게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강조하면서 딸들도 아들처럼 평등하게 살기를 원했다. 이러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세 자매는 여성으로서 남다른 도전을 해왔다. 그러나 이 여성들이 트레킹 가이드직에 진입하는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네팔에서 트레킹 가이드는 남성의 일자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여성 경

영자들은 남성 연대와 여성 배제의 문화 속에서 투쟁해야 했다.

우리는 지역 주민의 질투와 남성 포터, 가이드들의 편견과 싸워야 했어요.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여자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성매매를 시킨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저희의 활동에 대해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감사해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럭키).

럭키와의 인터뷰는 네팔에서 여성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것이 성매매 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여 준다. 쓰리시스터즈의 역사는 네팔에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세 자매는 남성들의 경계와 질투를 감수해야 했고 남성들과 경쟁해야 했다.

이 건물(게스트하우스와 식당)은 12년 전에 새로 지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랬어요. 작지만 좀더 튼튼하게 짓자. 돈을 더 투자해서 좀더 튼튼하고 좋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게스트하우스도 좀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침실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서 손님들이 기분 좋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십년 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으면서 검소하게 생활해요. 하지만 깨끗하게 입으려고 하죠. 주변의 게스트하우스는 너무 더러워요. 그들은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질투해요(럭키).

지역 사람들은 우리가 독신으로 살면서 여성 가이드와 포터를 양성하는 것을 보고, 쓰리시스터즈는 미쳤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일에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장점은 정직, 헌신, 강직함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우리들을 의심하고 부정했고 현재도 가끔 반대에 부딪혀요(디키).

여성 경영자들은 배려와 친절, 정직, 헌신, 강직함, 세심함을 통해 열심히 일함으로써 남성중심적인 사회 문화에 저항해 왔다. 이들은 지역의

게스트하우스와 차별화된 전략을 시도하면서 지역 남성들의 방해와 난관을 극복해 왔다. 세 자매가 사업에 성공한 것은 성실함과 노력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보살피고 남을 보살피고 함께 일한다”를 강조해요. EWP의 교육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적용되어 저는 여성들이 가난을 타파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럭키).

여성 경영자들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 경영자로서 성공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경험은 가난한 여성들을 보살피고 이끌어 주면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한다. 지역 여성들은 여성 경영자들을 존경하고 이러한 사업에 호응하면서 동참한다. 이들의 우정은 쓰리시스터즈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제 고향은 커필 바스투이고 네팔 동부에 있고 포카라에서 8시간 걸려요. 남편(22세)은 지금 인도에서 요리사로 일해요. 남편과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우리는 연애를 했어요. 저의 아버지는 운전사인데 네팔에서 운전자보다 가이드는 보수가 좋은 편이에요. 저는 졸업한 후에 포카라에 남아 일할 작정이예요. 아마 남편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사례 B).

EWN의 학생들이 가이드를 지망하는 이유는 운수업, 농업 등 다른 직업에 비해 고소득이기 때문이다. 사례 B는 운전기사로 일하는 아버지보다 가이드의 수입이 좋은 편이어서 직업의 전망이 좋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세요.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계속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가이드가 되려는 이유는 보수가 좋기 때문이에요. 가족을 부양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을 멀리 떠나야 했지만 부모님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찬성하셨어요. 가이드를 하려면 포카라에서 살아야 하고 부모

남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지만 괜찮아요. 자주 전화하고 연락하면 되니까 떨어져서 살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남자가 싫어요. 네팔에서 결혼하면 독립적일 수 없거든요(사례 C).

저는 타콜라에서 왔어요. 쓰리시스터즈의 ‘클루’라는 여성 가이드가 트레킹 코스로 우리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70세인데 연세가 많아서도 농사를 지으세요. 저는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었어요. 여기 오지 않았다면 계속 농사를 지었을 거예요. 부모님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찬성하셨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이 되고 싶어요. 여기서 배워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쓰리시스터즈는 우리의 좋은 친구이고 좋은 역할모델이에요(사례 D).

사례 C와 D는 독신여성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다가 집을 떠나 EWN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사례 C는 어렸을 때 나무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고 몸이 많이 아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현재 건강이 회복되었고 EWN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사례 D는 쓰리시스터즈의 트레킹 코스인 네팔 서부 타콜라 출신이다. 타콜라에는 타칼리족이 모여 산다. 그녀는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지었는데, 이 지역을 지나가던 여성 가이드를 통해 EWN의 교육 정보를 얻게 되었다.

사례 C와 D는 계속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들은 네팔에서 여성이 결혼하기보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경제적 독립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이 EWN에 오지 않았다면 부모와 함께 계속 농사를 지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노부모가 계신 집을 떠나 포카라에 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다. 가이드는 포터를 견해야 하고 트레킹 동안 체력과 육체노동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들은 평소에 농사일로 신체가 단련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농사와 가이드 모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선택하고 싶어한다. 농사는 자급자족 수준이지만, 가이드는 일한 만큼 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사례 C와 D는 교육 이후 포카라에서 가이드로 일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지만, 노부모를 부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들의 부모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딸의 성장을 위해 교육과 노동을 지지했다.

3년 전에 EWN을 졸업하고 현재는 EWN의 접수원과 가이드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포카라에 사는데요.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돈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어요.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됐죠. 저는 여기서 교육받고 일자리를 얻었어요. 제 여동생도 EWN에서 교육을 받았어요(사례 E).

사례 E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대학 진학의 꿈이 좌절되었지만, 결혼이 아닌 선택을 했다. 사례 E는 EWN에서 교육을 받고 가이드로 일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갖는다. 그녀는 쓰리시스터즈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기회를 얻었다.

한편, 지역 여성들이 가이드로 일하는 것은 경제적인 독립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신장하고 세상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기회가 된다. 여성 가이드들은 방문객들과 소통하고 타문화를 접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다. 지역 여성들은 서구의 방문객들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경계를 체험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장한다. 문화 간의 만남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보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질문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공동체에 변화를 가져온다(김애령, 2004). 사례 A는 서구의 방문객들과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세계 각국을 방문하고 싶은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농사를 지었지만 현재 가이드로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다.

럭키는 가이드로 일하다가 전문교육을 받고 간호사로서 일하는 EWN의 졸업생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다. 그녀는 졸업생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서 일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 여성 경영자 럭키는 EWN의 졸업생들이 평생 동안 가이드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쓰리시스터즈의 역할이 네팔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이드는 지역 여성들의 도전과 성장을 위한 과정과 기반이 될 수 있다.

포카라의 대학 사회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저는 유학을 가고 싶어요. 미국, 영국, 호주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인도에서 30년 동안 노동자로 일하셨어요. 저도 거기서 태어나서 10살 때 네팔로 돌아왔죠. 현재 부모님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세요. 저는 포카라에서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여동생도 EWN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맨처음에는 사촌오빠의 집에서 살다가 독립했어요. 사촌오빠의 집은 쓰리시스터즈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몇 분 거리로 매우 가까워요. 네팔에는 직업이 다양하지 않아 여성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워요. 네팔 사람들은 주로 관광산업과 농업에 종사하죠. 저는 가이드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 자신감을 얻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공부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네팔 여성들은 13-17살에 조혼을 하는데, 대졸 여성은 공부 때문에 결혼을 좀 늦게 해요(사례 G).

사례 G는 쓰리시스터즈에서 가이드로 일하면서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공부한다. 그녀의 부모는 인도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다가 현재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경제적 수익이 되지 못한다. 사례 G는 포카라에 있는 사촌오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현재 가이드로 돈을 벌기 때문에 사촌오빠의 집에서 나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쓰리시스터즈의 세 자매는 저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돌보고 돈을 버는 것이 남을 돌보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사례 B).

저는 여성이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결혼해서도 남편에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네팔에서는 여성이 직업을 갖기 어려워요. 럭키, 디키, 리키는 저에게 좋은 역할모델이에요. 그들은 여성에게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줬어요(사례 E).

EWN의 학생과 쓰리시스터즈의 가이드들은 여성 경영자들의 독신생활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세 자매의 삶은 여성에게 결혼이 인생의 전부 가 아니라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제시한다. 이들의 삶은 어머니와 아내 역할을 넘어서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네팔 여성들의 역할모델이 되고 있다. EWN의 학생과 쓰리시스터즈의 가이드들은 독신 이든 기혼이든 상관없이, 여성이 임금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여성의 의사결정권 확보와 임파워먼트를 위해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EWN과 쓰리시스터즈는 직업교육뿐 아니라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여성의 덕목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인터뷰한 학생과 가이드들은 한결같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자매는 여성의 역할모델로서 귀감이 되고 있다.

3) 교육, 능력 계발, 임파워먼트

여성 경영자들은 EWN을 설립해서 여성 가이드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생들을 가이드로 고용하고 있다. 트레이닝 가이드가 되고 싶어하는 여성들은 네팔 각 지역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다. 이 교육은 여성만이 지

원할 수 있지만 학력의 제한은 없다. EWN은 학비가 무료이고 숙식을 제공하며 보조가이드로 경력을 쌓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집을 떠나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가난한 여성들의 상황을 배려한 것이다.

EWN은 가이드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이 과정은 6개월이고 1년에 2번 학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주 5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제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암벽 등반(rock climbing)과 빙벽 등반(ice climbing)을 포함한 트레킹 기술, 영어회화, 네팔의 역사, 문화, 지리, 종교, 생태여행, 리더십, 건강과 위생, 응급처치 등을 배운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외부적으로 남성 가이드들에게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교육은 여성의 능력을 키우고 여성의 독립과 의사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암벽 등반과 빙벽 등반을 연습하면서 여성들은 자신감을 갖게 돼요. 신체적, 심리적 영역에서 여성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럭키).

여성 경영자 럭키는 EWN의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준다. 그녀는 여성들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도전하도록 격려한다. 럭키는 학생들에게 암벽 등반과 빙벽 등반을 훈련시키고 국내 및 세계 대회에 참여하기를 권고한다. 학생들은 대회에 참여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몇몇 학생들은 수상의 영예를 얻기도 한다.

네팔에서는 여기서처럼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EWN은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사레 B).

EWN에서 영어는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지구화 시대에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원어민과 회화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을 장점으로 생각했다. 이들은 원어민 여성 강사에게 영어를 배웠다. 인터뷰를 할 때 학생들의 영어는 개인차가 있었고 때때로 EWN을 졸업한 선배 가이드의 통역이 필요했다. 사례 F는 EWN에서 교육받고 10년 동안 가이드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처음에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졸업 후에 가이드로 일하면서 영어실력이 월등히 향상되었다고 했다.

여성 경영자들은 생태여행을 통한 수익을 여성 노동자들과 배분할 뿐 아니라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돕는다. 이러한 헌신은 경제적 이윤의 추구보다 여성에 대한 우정과 연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EWN은 가부장제에 취약한 여성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네팔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EWN의 학생과 가이드들은 여성 경영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기업 쓰리시스터즈는 지역 여성에게 교육과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성의 의식화와 임파워먼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WN의 학생들과 여성 가이드들은 집을 떠나서 함께 교육을 받고 일하면서 정서적으로 서로를 지지해 준다. 이들의 관계는 여성들이 자신감을 갖고 능력을 계발하며 성차별적인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가이드들은 자매, 친구들에게 교육 정보를 소개함으로써 다른 여성들을 이끌어 주고 이러한 과정에서 쓰리시스터즈는 여성 간의 우정과 연대를 기반으로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여성주의 공동체를 구성한다.

4) 여성 가이드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

여성 가이드는 월급제가 아니라 실적에 따른 능력급제다. 즉, 쓰리시스터즈에 고용된 여성 가이드들은 일하는 횟수와 양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장점은 많이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수요에 비해 방문객 수는 한정되어 있다. 또한 가이드들은 비수기에 일이 없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사례 G).

사례 G와 사례 H는 지역의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에서 공부하면서 가이드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가이드를 평생의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시적 직업으로 생각한다. 사례 G는 미국이나 영국 등으로 유학을 원한다. 그녀는 영어를 공부하면서 장학금의 수혜가 가능한 학교를 알아보고 있다. 그녀는 유학 이후 현재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또한 사례 H는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하고 싶어한다. 그녀는 서울 근교의 공장에서 일하는 네팔의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는 코리안 드림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인터뷰 당시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시험에 꼭 합격해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했다. 그녀는 포카라의 사설학원에서 5명 내외의 소집단으로 한국인 선생님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다.

현재 쓰리시스터즈는 5대 50으로 이익을 분배하고 있다. 비수기의 상황과 가이드의 수고 등을 고려한다면 쓰리시스터즈가 가이드와 50% 이상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 경영자들은 기업의 관리와 재투자 비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가이드의 입장에서 7대 3이나 6대 4정도의 분배를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여성 가이드들은 임신, 출산, 양육을 하는 동안에도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여성 가이드들은 수

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린다.

가족은 결혼해서 남편과 딸이 하나 있어요. 저는 10년 전에 쓰리시스터즈에서 교육받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중간에 3년 쉬었어요. 어쩔 수 없었죠. 그 동안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활이 조금 힘들었어요(사례 F).

사례 F는 EWN에서 교육을 받고 쓰리시스터즈의 사무실에서 접수원이자 가이드로서 10년 동안 일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지만 딸을 출산한 이후 양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3년 동안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쓰리시스터즈는 대다수의 여성으로 구성된 회사다. 이곳이 여성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 가이드들이 임신, 출산, 양육 시기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노동하는 동안 양육을 지원해야 한다.

6. 맺음말

이 연구는 네팔의 생태여행 기업 쓰리시스터즈를 통해 지역 여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러한 관계가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쓰리시스터즈는 트레킹 가이드의 교육과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 생태여행 사업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우정, 연대를 증진시킨다. 쓰리시스터즈를 통해 형성되는 여성들의 우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여성주의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 경영자와 여성 가이드, EWN의 학생, 보육원의 십대여성들 간에 형성되는 우정이다. 여성 경영자와 이 여성들과의 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연대를 통해 성불평등한 사회를 변화시킨다. 여성 경영자들은 네팔 여성들이 조혼, 아내폭력, 성매매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경제적 독립이 여성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경제적 자원을 가진 여성으로서 보살핌이 필요한 여성들, 가부장제 사회에서 상처받기 쉬운 여성들에 대해 책임의식을 느끼고 물질적·정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여성 경영자들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들과 협상, 투쟁하면서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역 여성들의 역할 모델이 된다. 더 나아가, 여성 경영자들은 기업을 넘어서서 다른 여성들의 역할모델이 되어 주고 여성들의 의식화, 경제적 독립과 의사결정권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EWN의 학생들과 여성 가이드 간에 형성되는 우정이다. EWN의 학생들은 집을 떠나 숙식을 함께 하면서 교육을 받고 쓰리시스터즈에 고용되어 함께 일한다. 네팔에서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남편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존하면서 아내, 어머니 역할에 한정되어 살아간다. 그러나 EWN의 학생과 쓰리시스터즈의 여성 가이드들은 기존의 성역할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준다.

쓰리시스터즈의 사업은 가족사업에서 출발했지만 가족을 넘어서서 지역 여성들에 관한 관심, 보살핌, 배려 등을 보여 준다. 또한 가난한 네팔 여성들은 쓰리시스터즈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자아인식을 강화시킨다. 여성 경영자와 여성 가이드, 여성 가이드와 EWN 학생 간의 우정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의 독립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여성주의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쓰리시스터즈의 사업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통한 가난 극복뿐 아니라 네팔 사회의 성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아시아 여성의 위치와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로서 아시아 여성학의 지식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미희(2006), 『생태관광객의 여행동기 및 태도』, 파주: 한국학술정보.
- 강신겸(2007), 『농촌관광』, 서울: 대왕사.
- 곽지영(2006), “공교육소의 장애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1호, 7-51쪽.
- 김경미·김동주·권순용(2010), “여성장애인 성역할 정체감과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연구』, 제20집 1호, 189-213쪽.
- 김애령(2004), “이방인의 언어와 환대의 윤리”, 『젠더와 탈/경계의 지형』, 이화인문과학원 엮음,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41-71쪽.
- 루고네스, 마리아(2005), “공동체”, 『여성주의 철학 2』, 재거, 엘리슨 M·아이리스 마리온 엮음, 한국여성철학회 옮김, 서울: 서광사, Jaggar, A. M. and I. M. Young(eds.)(2000), *A Companion to Feminist Philosophy*, Malden: Blackwell, pp. 466-474.
- 리치, 아드리엔(2002),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김인성 옮김, 서울: 평민사, Rich, A. C.(1976), *Of Woman Born*, New York: Norton.
- 마이어, 우줄라(2006), 『여성주의철학 입문』, 송안정 옮김, 서울: 철학과 현실사, Meyer, U. I.(2004), *Einführung in die Feministische Philosophie*, ein-FACH-verlag.
- 모한티, 찬드라(2005), 『경계없는 페미니즘: 이론의 탈식민화와 연대를 위한 실천』, 문현아 옮김, 서울: 여이연, Mohanty, C.

- T.(2003), *Feminism Without Borders: Decolonizing Theory, Practicing Solidar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발렌타인, 질(2009), 『사회지리학』, 박경환 옮김, 서울: 논형, Valentine, G.(2001), *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Harlow: Prentice Hall.
- 블로뉴, 장 클로드(2006), 『독신의 수난사』, 권지현 옮김, 서울: 이마고, Bologne, J. C.(2006), *Histoire du Celibat et des Celibataires*, Paris: Seuil.
- 브라운, 주디스(2011), 『수녀원 스캔들』, 임병철 옮김, 서울: 푸른역사, Brown, J.(1986), *Immodest Acts: the Life of A Lesbian Nun in Renaissance Ital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월비, 실비아(1996), 『가부장제 이론』, 유희정 옮김,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Walby, S.(1990), *Theorizing Patriarch*, Oxford: Basil Blackwell.
- 이상화(2005), “리더십과 권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념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제22집 1호, 3-22쪽.
- 이인숙(2010), “한부모 여성의 조직 참여특성이 임파워먼트 효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제41권 2호, 189-216쪽.
- 이혜정(2010),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몇 가지 단상”,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철학』, 제14호, 65-89쪽.
- 임영신·이혜영(2009), 『희망을 여행하라: 공정여행 가이드북』, 서울: 소나무.
- 최민석(2010), 『너의 눈에서 희망을 본다』, 서울: 조화로운삶.
- 프레이리, 파울로(1978), 『교육과 의식화』, 채광석·심지연 옮김, 서울: 새발, Freire, P.(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trans.)

- Myra Bergman Ramos, New York: Continuum.
- 프리드먼, 제인(2002), 『페미니즘』, 박혜경 옮김, 서울: 이후, Freedman, J.(2002), *Feminism*,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하트만, 하이디(1989), “행복한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론의 불행한 결혼: 보다 발전적인 결합을 위하여”, 『여성해방이론의 쟁점: 사회주의 여성해방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하트만, 하이디 · 린다 번햄 엮음, 김혜경 · 김애령 옮김, 서울: 태암.
- 허라금(2011), “아시아 개도국 공예산업화와 여성 임파워먼트”,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철학』, 제15권, 67-93쪽.
- 호글랜드, 사라 루시아(2005), “레즈비언 윤리학”, 『여성주의철학2』, 재거, 앨리슨 M. · 아이리스 마리온 영 엮음, 한국여성철학회 옮김, 서울: 서광사, Jaggar, A. M. and I. M. Young(eds.)(2000), *A Companion to Feminist Philosophy*, Malden: Blackwell, pp. 109-122.
- HOOKS, 벨(2002), 『행복한 페미니즘』, 박정애 옮김, 서울: 백년글사랑, Hooks, B.(2000), *Feminism is for Everybody: Passionate Politics*, Cambridge: South End Press.
- Desouza, S.(2010). “The Impact of Tourism on the Nutrition & Health of Women in the Host Community: A Case Study of Goa, India”, The Second Congress of the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Proceedings: Abstract, CAAWS 2010, Penang, Malaysia, 2010. 12. 9-11, p. 111.
- Friedman, M.(1989), “Friendship and Moral Growth”, *Value Inquiry*, 23(3), pp. 3-13.
- Hall, C. M.(1992), *Women and Empowerment, Strategies for Increasing Autonomy*, Washington: Hemisphere.

- Honey, M. and E. Stewart(2002), "Instruction", in *Ecotourism and Certification: Setting Standards in Practice*, ed. M. Honey, Washington: Island Press, pp. 1-29.
- Hooks, B.(1990), *Yearning*, Boston: South End Press.
- Kaufman, M. R. and M. Crawford(2011), "Sex Trafficking in Nepal: A Review of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rograms", *Violence Against Women*, 17(5), pp. 651-665.
- Kittay, E.(2002), "When Caring is Just and Justice is Caring: Justice and Mental Retardation", in *The Subject of Care: Feminist Perspective on Dependency*, ed. E. Kittay and E. K. Feder,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Lister, R.(1997), "Dialectics of Citizenship", *Hypatia*, 12(4), 1997 fall.
- Malloy, D. C. and D. A. Fennell(1998), "Ecotourism and Ethics: Moral Development and Organizational Cultur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4), pp. 47-56.
- Parpart et al.(2002), "Rethinking Empowerment, Gender and Development: An Introduction", in *Rethinking Empowerment: Gender and Development in a Global/ Local World*, London: Routledge, pp. 3-21.
- Puri, M. et al.(2010), "Exploring the Nature and Reasons for Sexual Violence Within Marriage among Young Women in Nepa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10), pp. 1873-1892.
- Raymond, J.(1986), *A Passion for Friends: toward a Philosophy of Female Affection*, London: Women's Press.
- Stromquist, N. P.(2002), "Education as a Means for Empowering Women", in *Rethinking Empowerment: Gender and*

Development in a Global/ Local World, ed. J. L. Parpart, et al., London: Routledge, pp. 22-38.

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and UN Entity for Gender and the Employment of Women(2011), “Global Report on Women in Tourism 2010 Preliminary Findings”, 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and UN Entity for Gender and the Employment of Women.

Walker, S. et al.(2001), “Women and Mountain Tourism”, in *Women as Producers and Consumers of Tourism in Developing Regions*, ed. Y. Apostolopoulos, S. Sonmez and D. J. Timothy, Westport: Praeger, pp. 211-235.

Wearing, S. and J. Neil(2009), *Ecotourism: Impacts, Potentials and Possibilities?*, Oxford: Elsevier.

Wight, P.(1993), “Ecotourism: Ethics or Eco-Sell?”, *Journal of Travel Research*, 31(3), pp. 3-9.

〈인터넷 자료〉

3 Sisters Trekking Adventure(2012), <http://3sistersadventure.com>

원고접수: 2012. 04. 25

원고수정: 2012. 06. 22

게재확정: 2012. 06. 19

〈Abstract〉

Nepali Ecotourism and Women's Relationship, Friendship and Solidarity: An Analysis Focused on '3 Sisters Adventure Trekking'

Dong-Ok Lee

Tourism has been criticized for making a profit by destroying the local environment and culture, as well as exploiting the labor of the locals. The business of ecotourism sets a high valu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tors and local people, and it pursues equal profit sharing with local people.

'3 Sisters Adventure Trekking', a Nepali company of ecotourism, has taught and employed female trekking guides. This research project considers how local women's relationship are constructed in Nepali ecotourism and how women's friendship and solidarity influence their lives, focusing on '3 Sisters'. Both literature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were implemented.

Although women managers started as a family business, they dedicated themselves to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raising awareness of their situation by taking care of women in need and offering education and labor. Students of EWN and guides make women managers good role models and help one another by learning and working together. Nepali ecotourism examined through

'3 Sisters' produces an independent space for women based on women's friendship and solidarity.

KEY WORDS: ecotourism, women, relationship, friendship,
solidarity